부천지방회 총여전도연합회, 제31회 찬양 축제 개최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지원 위해 마련



부천지방회 총여전도연합회(회장 유은미 권사, 여월동교회)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 참좋은교회(박용철 목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제31회 찬양 축제를 개최했다.

부천지방회 총여전도연합회가 주관해 31회째 이어 온 이번 축제는 교회 간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찬양과 나눔을 통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1부 순서로는 참좋은교회 에이레네 찬양단의 찬양으로 분을 열었다. 이어 지방회 여전도회 부장 윤경일 목사(여월동교회)가 기도했으며, 지방회장 박병두 목사(행복한목

신적인 수고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시간이 마련됐다. 각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어우러졌으며, 찬양 순서 사이에 진행된 경품추첨은 참석자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를 통해 교회 간 친교를 나누고, 한마음으로 지역교회와 복음 사역을 섬기는 연합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찬양의 감동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총여전도연합회는 행사 후 마련된 후원금으로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 6곳을 지원하고, 일부 금액은 내년부터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적립할 계획이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거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총여전도연합회는 앞으로도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어 가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개척 현장을 지원하며 지방회 안에 사랑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참좋은교회 김원교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경기지방회, 2026 직분자 부흥회 개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실할 것" 다짐

경기지방회(회장 한민기 목사)가 지난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백운호수교회에서 '2026 은혜로 함께 세워가는 경기지방회 직분자 부흥회'를 개최했다. '고난의 영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지방회 산하 교회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한민기 목사의 사회로 마하나임찬양단의 찬양과 경배, 경기지방장로회장 김병철 장로의 대표기도, 경기지방장로회의 특송 및 봉헌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강사로 나선 차준희 목사는 '고난의 영성'(욥 2:3)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차 목사는 고난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 목사는 현재 한세대학교 신학과 석좌교수로,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와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강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지방회장 한민기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제83회기 경기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이번 부흥회는 경기지방회 산하 교회 직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각 교회와 지방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지방회주재기자 안선영 목사

서울지방회 장로회, 강화도에서 가을 야유회 가져

장로회의 활성화와 내년도 사업계획 논의



서울지방회 장로회(회장 변우섭 장로)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토)에 강화도에서 단합과 친교를 위한 야유회를 가졌다.

장로 부부들이 함께한 이번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은 화개정원을 거닐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함으로 즐기고,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이어 오찬 후에는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울지방회 장로회의 활성화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지방회 제공)

대화교회, 제2대 담임목사 위임식 거행

김덕중 목사 담임 위임… "지역복음화 위해 힘쓸 것" 다짐



서산지방회 대화교회(김덕중 목사)가 지난 10월 24일 제2대 담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했다. 지방회장 이강우 목사(동암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부회장 박인철 목사(늘푸른교회)의 기도와 서기 이근희 목사(원정교회)의 성경봉독(마 16:16-20) 후 총회장 이종만 목사가 '교회는 승리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서산감찰장 한인섭 목사(믿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서기 이근희 목사(원정교회)의 위임목사 소개가 있은 후 교회대표로 양순모 권사가 서약하고 치리목사 김상혁 목사(햇빛교회)의 위임기도과 위임례 후에 지방회장 이강우 목사가 김덕중 목사를 대화교회 2대 담임목사로 공포하였다.

3부 감사와 축하의 시간에는 대화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김덕중 목사의 사회로 김성호 목사(시흥지방회장, 하늘빛교회), 류제곤 목사(유지재단 이사장, 합덕제일교회)의 권면과 박근주 원로장로(더드림교회), 김병옥 목사(부장교회)의 축사 및 김덕중 목사의 답사가 있었으며, 햇빛교회 박종학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위임식의 순서를 마쳤다.

위임받은 김덕중 목사는 충남 부여 출생으로 성결대학교 목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10년 안양지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서지방회 하늘바람교회를 개척하여 14년간 목회하였으며, 총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배우자 유인선 사모와 함께 목회하고 있다.

서산지방회주재기자 이근희 목사

복된우리교회, 설립감사예배 드려

"세우고, 되찾고, 드러내는 교회" 되길 당부



경남지방회 소속 복된우리교회(석준기 목사)는 지난 10월 18일(주일) 오후 5시, 교회설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순서에 따라 1부 예배와 2부 설립예식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지방회장 박종렬 목사(시냇가의심은교회)는 "세우고, 되찾고, 드러내는 교회"(고전 16:14)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우리교회를 담임하게 된 석준기 목사는 "복된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개척하게 된 생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룻 4:13-17), '생명과 은혜의 강물이 가정, 지역, 일터로 흘러가는 교회'(겔 47:9)를 꿈꾸며 정관신도시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라며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소개했다.

이날 경남지방회는 복된우리교회의 귀한 교회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을 축복했다.

경남지방회주재기자 박희석 목사

2026년 목회사역연구회 송년회

2026년 한해도 목양의 일선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아름다운 우정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원간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속초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2026.12. 8.(화) 오전 11시
장 소 속초 '창백호선장네 홍게 무한리필'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121
대 상 목회사역연구회 회원

※ 참석여부를 알려주십시오(사무총장 차종관 목사 010-5416-4098)

목회사역연구회 Ministry Academy
대표회장 정종판 목사
사무총장 차종관 목사

